

지진해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행동하나?



지진해일은 지진발생후, 순식간에 밀어닥칠 수가 있습니다. 해안 부근에 있을 때는, 강한 지진이나 장시간의 흔들림이 감지되면, 지진해일경보의 유무와 상관없이, 한시라도 빨리 그 자리에서 벗어나, 높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니다.

자기집이 안전한 장소라 해도 항상 집에 있으란 법은 없습니다. 일어나 장을 보러 집을 비우거나 해안가 근처로 갈 수도 있습니다. 지진해일에 대한 피난포인트를 숙지해 둡시다.

지진해일에 대한 4 가지 피난포인트

1 지진의 흔들림 정도를 가지고 스스로 판단하지 않는다

흔들림이 그다지 크지 않아도 지진해일이 일어난 경우는, 과거에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메이지 산리쿠 지진 (명치29년 (1896년)) 은, 연안에서 진도3 정도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지진해일이 밀어닥쳤습니다. 지진해일 위험지역에서는 조금 흔들리거나, 흔들림이 감지되지 않아도, 일단 대피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3 지진해일의 “속설”을 믿지 마라

니혼카이 쥬부 지진 (소화58년 (1983년)) 의 경우, 아키타현에서 바닷가로 소풍나온 초등학생들이 지진해일에 휩쓸리는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 지진이 발생하기 전까지, 「니혼카이에는 지진해일이 없다」 라는 속설이 전해져 오고 있어, 그런 주민들의 지진해일에 대한 경계심 부족이 지적되었습니다. 근거 없는 속설에 생명을 맡기는 일이 없도록, 기상청의 지진해일 정보에 귀를 기울입니다.



2 대피할 때는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자동차로 피난가는 것은 하지 않습니다. 홋카이도 난세이오키 지진 (평성5년 (1993년)) 의 경우, 오쿠시리도에서는 자동차로 피난가는 사람이 속출해서, 좁은 도로가 막혀 버려, 그로 인해 지진해일에 휩쓸려 생명을 잃은 사람이 많이 나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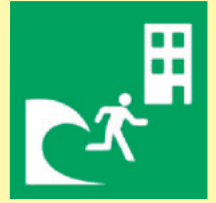
4 “멀리” 보다는 “높게”

이미 침수가 시작되어 버린 경우는, 생각대로 대피가 가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멀리 보다는 높은 곳, 예를 들면 근처의 고층건물 등으로 대피합니다. 단, 철근콘크리트 구조로서 3층 이상 건물의 3층 위로 대피합니다. 지진해일 피난건물이 있으면, 그 곳으로 대피합니다.

津波・洪水避難ビル (지진해일・홍수 피난건물)

지진해일·홍수 피난건물

스이타시에서는 지진해일·홍수 피난대책으로서 「지진해일·홍수 피난건물」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公共施設 (공공시설)

吹田第一小学校	第三中学校
吹田第二小学校	第五中学校
吹田第三小学校	第六中学校
吹田東小学校	豊津中学校
吹田南小学校	豊津西中学校
吹田第六小学校	内本町コミュニティセンター
豊津第一小学校	勤労者会館
豊津第二小学校	文化会館(メイシアター)
江坂大池小学校	

※공공시설·민간시설의 소재지는 ‘방재 맵’(P31-)을 참조해 주십시오.

民間施設 (민간시설)

ダスキンピア
ダスキン大阪中央工場
ダスキンスクール
NESCO 総合ビル
ビケンテクノ本社ビル
向洋電機(株)
アドリーム江坂
リーサイド豊津
トップ産業ビル
寿町藤原ビル
江坂スクエアビル
シティハウス吹田穂波公園
GLA 近畿会館
GLA 近畿会館別館
明治東洋医学院専門学校

지진·지진해일

화재

풍수·재해·토사재해

도시형재해

평상시의 대비

지역방재

방재지도